

헤로데 가문의 계보

헤로데 가문은 기원전 55년경부터 기원후 1세기경까지 팔레스티나 지역을 통치하였던 이두매아 출신의 가문으로, 하스모니아 왕조 몰락 후 로마 제국과의 긴밀한 결탁을 토대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나가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신약 성경에서 헤로데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헤로데 대왕: 헤로데 대왕은 기원전 37년에 유다·이두매아·베로이아·갈릴래아 지방을 포함한 하스모니아 왕조의 영토를 로마로부터 얻어 내어 유다의 임금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안정시키고자 하스모니아家の 핵심인물들과 자신의 혈족들을 과감히 살해하는가 하면, 문화 부흥을 위해 성전을 건축곳곳에 헬레니즘적인 건물들을 건설하여 예루살렘을 화려하고 위엄 있는 도시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 로마의 친구로 자처하면서 아우구스투스황제 재위 기간 동안 세력을 크게 확장시켜 마싸다 등의 요새를 건설하였고, 사마리아에는 ‘아우구스투스의 도성’을 새로 창건하였다. 그에게는 열 두명의 아내에게서 얻은 일곱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사후에 세 아들에게 영토가 분할되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따라서 그는 베들레헴의 유아 대량 학살 사건을 지시한 장본인이었다.

헤로데 안티파스 : 헤로데 대왕의 아들로서 기원전 4년에 갈릴래아와 베로이아의 영주가 되었다. 이 헤로데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의해 “여우”(루카 13,32)라고 불리었고, 이복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한 인물로서 세례자 요한을 참수한 장본인이다. 그는 일곱 도시를 건설하여 요새화 하고 그중 하나인 티베리아스를 새수도로 삼았다. 그러나 기원후 39년경에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의 득세로 파면되어 오늘날의 리용으로 유배를 가서 생애를 마쳤다.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 기원후 37년경 로마의 황제 갈라굴라로부터 임금의 칭호를 받고 등장하여 클라우디우스 (기원후 41-54년)가 왕위에 오르는 데 공헌한 대가로 유다· 이두매아 · 사마리아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는 유다교의 율법을 철저히 시행하였으며, 유다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박해하였다. (사도 12,3) 6년간의 통치 후 카이사리아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